



업사이클,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콘텐츠

최 병 옥

아시아업사이클제주포럼 사무국장

순서

- 1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 2 순환경제 전환 현황
- 3 국내 업사이클 산업 현황
-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1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1 미국, 파리기후협약 복귀



(출처 : abcnews.com Biden inauguration date 2021.1.20)



(출처 : 9&10news.com <Biden Signs First Executive Actions as President, Re-Joins Paris Climate Agreement> 2021.1.21)

Biden, 대통령 취임 1일 만에 파리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에 서명

1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2 미국 SEC, '23년부터 대기업에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The screenshot shows the ESG Economy website header with navigation tabs: 지속가능경제, 환경·사회, 기업·거버넌스, 평가·투자, 이슈리포트, and 오피니언. The article title is 'SEC, 기후정보 공시 내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미국 상장기업들의 대응은'. The author is 이신형 기자, published on 2022.05.02 at 11:47, last updated at 13:04, with 0 comments. The article text states: '스코프 1, 2 공시, 대기업은 2023년, 중견기업은 2024년, 중소기업은 2025년부터 공시. 스코프3 공시, 대기업은 2024년에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부터. 현재 미국 상장사 중 28%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 3 공시 기업은 15% 불과.'

(출처 : 이신형 기자, <SEC 기후정보 공시 내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미국 상장기업들의 대응은>, ESG경제, 2022.0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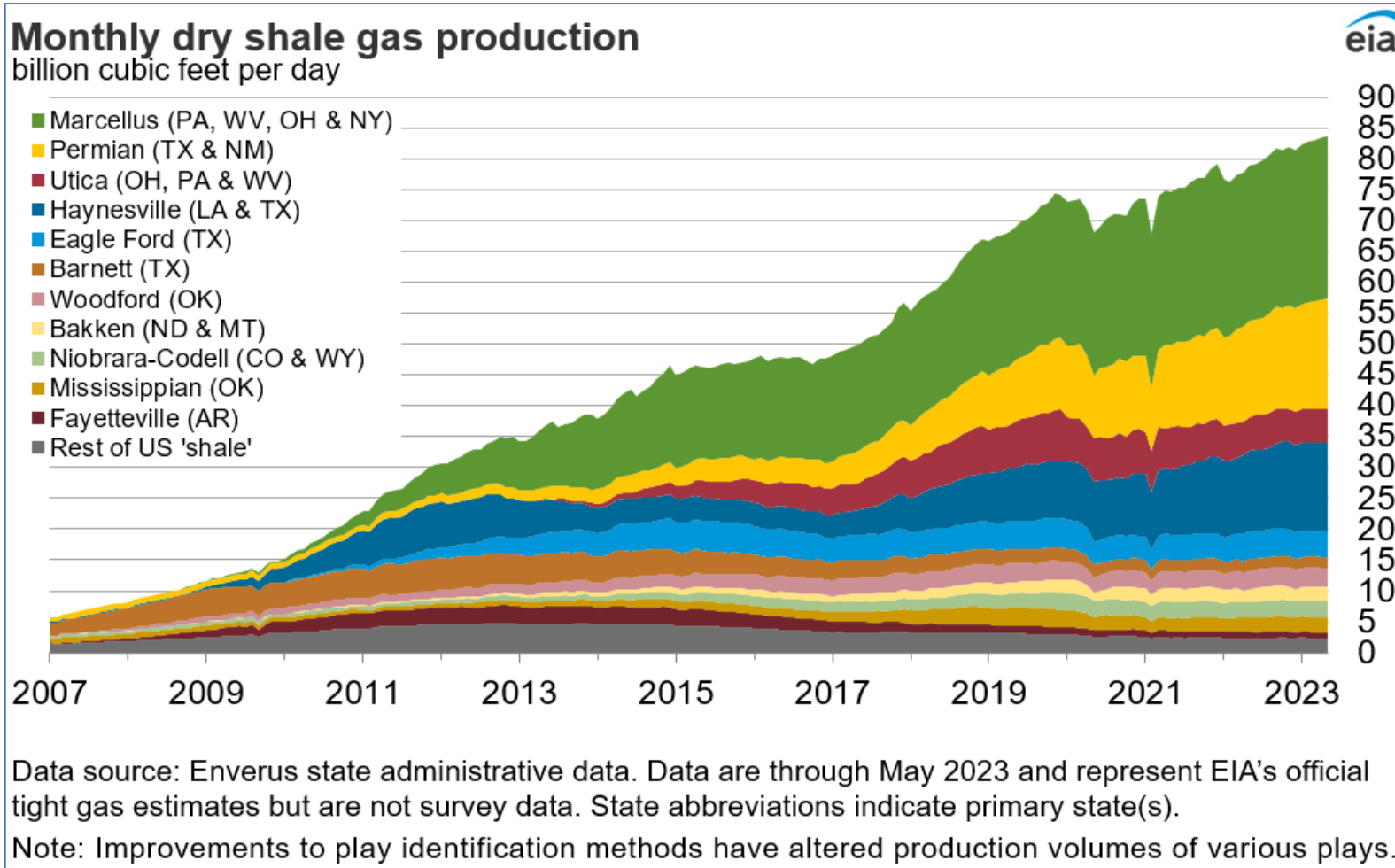
스코프1(Scope1) :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온실가스

스코프2(Scope2)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온실가스

스코프3(Scope3) :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 탄소 배출량**

1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3 미국의 의도(1/4)



* 1 bil. cubic feet(ft³)
= 178 mil. bbl

(출처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 <Natural Gas Weekly Update>, 2023.07.19.)
<https://www.eia.gov/naturalgas/data.php#prices>

1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3 미국의 의도(2/4)

TRADING ECONOMICS					
원유 생산량 - 국가 목록					
세계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G20
국가	마지막	이전	참고	단위	
미국	12615	12696	2023-04	BBL/D/1K	
러시아	10177	10477	2023-03	BBL/D/1K	
사우디 아라비아	9956	9959	2023-06	BBL/D/1K	
캐나다	4633	4623	2023-03	BBL/D/1K	
중국	4283	4295	2023-03	BBL/D/1K	
이라크	3985	3955	2023-06	BBL/D/1K	
브라질	3115	3262	2023-03	BBL/D/1K	
아랍 에미리트	2893	2891	2023-06	BBL/D/1K	
이란	2754	2698	2023-06	BBL/D/1K	
쿠웨이트	2548	2548	2023-06	BBL/D/1K	

(출처 : TRADING ECONOMICS, <원유 생산량 - 국가 목록>, 1-10위까지 간추림, 2023.07.27.)
<https://ko.tradingeconomics.com/country-list/crude-oil-production>

1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3 미국의 의도(3/4)

(중략) ...

결과적으로 미국은 유·가스 부분의 경쟁력과 친환경 부분의 경쟁력을 동시에 가지는 양날의 검을 쥐고자 한다. 현재 미국은 유일하게 생산 차원의 조절 능력과 내수 시장을 통한 수요 역량, 그리고 환경 차원에서의 대응 역량을 동시에 축적해 가고 있다. 달러의 발권력과 금융 시장에서의 영향력까지 고려했을 때, 국제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은 더 강력해지고 있다.

...

(출처 : GS칼텍스 미디어허브,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국제 에너지 지정학의 재편>,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장 모네 석좌교수 이재승 교수, 2021.01.26.)
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biden_administration_energy_policy/

1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3 미국의 의도(4/4)

(중략) ...

그러나 에너지 지정학은 이제 **탄소 전쟁**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이행해 가고 있다. 탄소 및 친환경 경쟁력을 가진 주체들이 **새로운 통상 규범 및 표준 선정**을 주도하고자 한다. 탈탄소화는 결코 느슨해진 국제 통상환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 **미국**의 친환경 부문이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을 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기술과 관련한 주 차원과 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민간 R&D 역량은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유럽 역시 그린 딜과 탄소 중립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저탄소 경제의 주도권 및 기술 표준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역시 그린 딜과 탄소 중립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희토류를 비롯한 소재 및 원료를 놓고도 중국과 주요 산업국들이 발 빠른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출처 : GS칼텍스 미디어허브,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국제 에너지 지정학의 재편>,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장 모네 석좌교수 이재승 교수, 2021.01.26.)
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biden_administration_energy_policy/

1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4 EU 시각에서 본 미국의 의도(1/3)

 Green Deal Reloaded - Why the European Climate Policy Won't Happen Without China  

ANALYSIS - 28 APRIL 2021

Climate protection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battle for hegemony taking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in the context of this high-intensity geopolitical conflict, climate protection has taken on a well-defined geopolitical dimension. In the seventh article of the "Green Deal Reloaded" series, Roderick Kefferpütz, Senior Analyst at the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MERICS),¹ suggests that the Franco-German tandem should encourage the European Union to confront this reality, in order to pursue a climate realpolitik that combines cooperation and competition.

Global warming poses a challenge to the planet as a whole. In fact, that goes without saying-greenhouse gases don't stop at borders. Climate protection thus concerns the global community. And becaus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vital to curbing climate change**, it is frequently claime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should be separated from other political conflicts. But this is not the case now; a new geopolitical order is being established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ve long been engaged in a competition for hegemony**, the effects of which are felt in every field and sector. As a result, the European Union in general, and France and Germany in particular, must pursue a climate policy towards China that factors in the geopolitical dimension. China has been on this path for some time; the pandemic has not made the situation any less complex. While Beijing has been growing at a brisk and brazen pace, the economy in Europe has stalled. And yet, a strong economy is what's needed to take the green transformation forward-and ultimately, to protect the climate.



By Roderick Kefferpütz
SENIOR POLITICAL ANALYST
AND FREELANCE WRITER

(출처 : 몽테뉴 연구소(ISTITUT MONTAIGNE)² <Green Deal Reloaded> 7. Why the European Climate Policy Won't Happen Without China 2021.04.28.)

1 MERICS : 독일 최대 민간 재단 중 하나인 Stiftung Mercator에 의해 2013년 설립된 유럽의 對중국 싱크탱크

2 몽테뉴 연구소(ISTITUT MONTAIGNE) : 프랑스 파리에 기반을 두고 2000년에 설립된 공공정책 싱크탱크

1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4 EU 시각에서 본 미국의 의도(2/3)

Climate protection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battle for hegemony** taking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in the context of this high-intensity geopolitical conflict, climate protection has taken on a well-defined geopolitical dimension. In the seventh article of the "Green Deal Reloaded" series, Roderick Kefferpütz, Senior Analyst at the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MERICS), suggests that the Franco-German tandem should encourage the European Union to confront this reality, in order to pursue a climate realpolitik that combines cooperation and competition.

기후 보호는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패권싸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강도의 지정학적 갈등 맥락 속에서 기후 보호는 잘 정리된 지정학적 차원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린 딜 재장전" 시리즈의 일곱 번째 기사에서 MERICS(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¹의 수석 분석가인 Roderick Kefferpütz는 프랑스와 독일의 2인3각 협력으로 유럽 연합이 협력과 경쟁을 결합한 기후 현실정치의 이러한 현실에 맞서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출처 : 몽테뉴 연구소(ISTITUT MONTAIGNE)² <Green Deal Reloaded> 7. Why the European Climate Policy Won't Happen Without China 2021.04.28.)

1 MERICS : 독일 최대 민간 재단 중 하나인 Stiftung Mercator에 의해 2013년 설립된 유럽의 對중국 싱크탱크

2 몽테뉴 연구소(ISTITUT MONTAIGNE) : 프랑스 파리에 기반을 두고 2000년에 설립된 공공정책 싱크탱크

1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4 EU 시각에서 본 미국의 의도(3/3)

... (중략)

Finally, what we are witnessing is **a competition of economic systems**. **The fight against global warming is also a competition between the social market economy and state capitalism** and their associated political system-liberal democracy for the former and autocracy for the latter. This fight resembles **a race against time** to see which one will succeed more quickly and more effectively in **defining and guiding the necessary transformation processes**. ...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경제체제의 경쟁**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향한 싸움도 또한 사회적 시장 경제와 국가 자본주의 간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 연계된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주의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은 누가 보다 빠르고 보다 효과적으로 **필수적 전환 과정을 정의하고 안내**하는 것에 성공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싸움**을 다했습니다.

(출처 : 몽테뉴 연구소(ISTITUT MONTAIGNE)² <Green Deal Reloaded> 7. Why the European Climate Policy Won't Happen Without China 2021.04.28.)

21C 체제 경쟁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전환 모델(순환경제구조, 자원순환사회) 제시**의 시간 싸움
기후위기대응 전략은 윤리적 가치 실현만이 아닌 **경제적 패권** 획득을 목표

1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5 소 결

자원순환사회 혹은 순환경제구조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이며 **먹고 사는 문제**로 접근

세계 자본은 변화된 **시장의 표준**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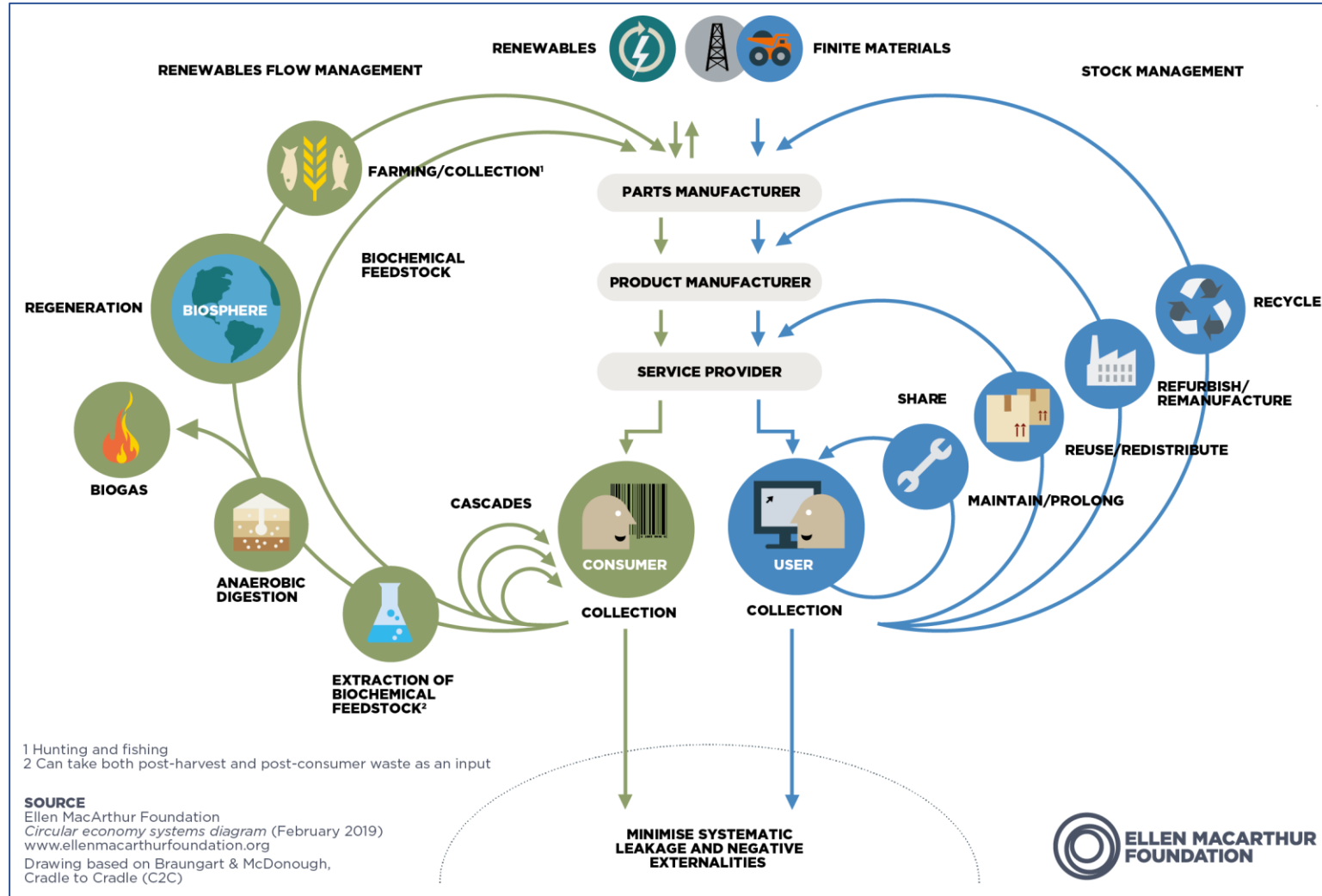
그만큼 해당 시장에 **기회**가 생겼음을 의미

2

순환경제 전환 현황

2 순환경제 전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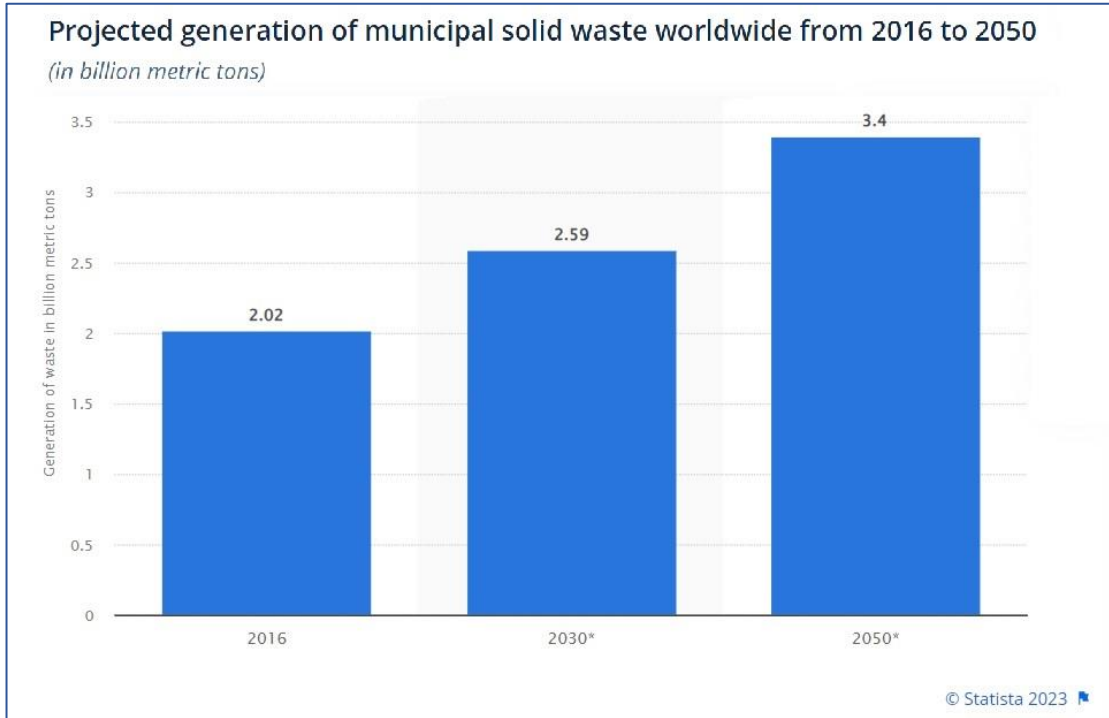
-1 이미 완성된 순환경제 전환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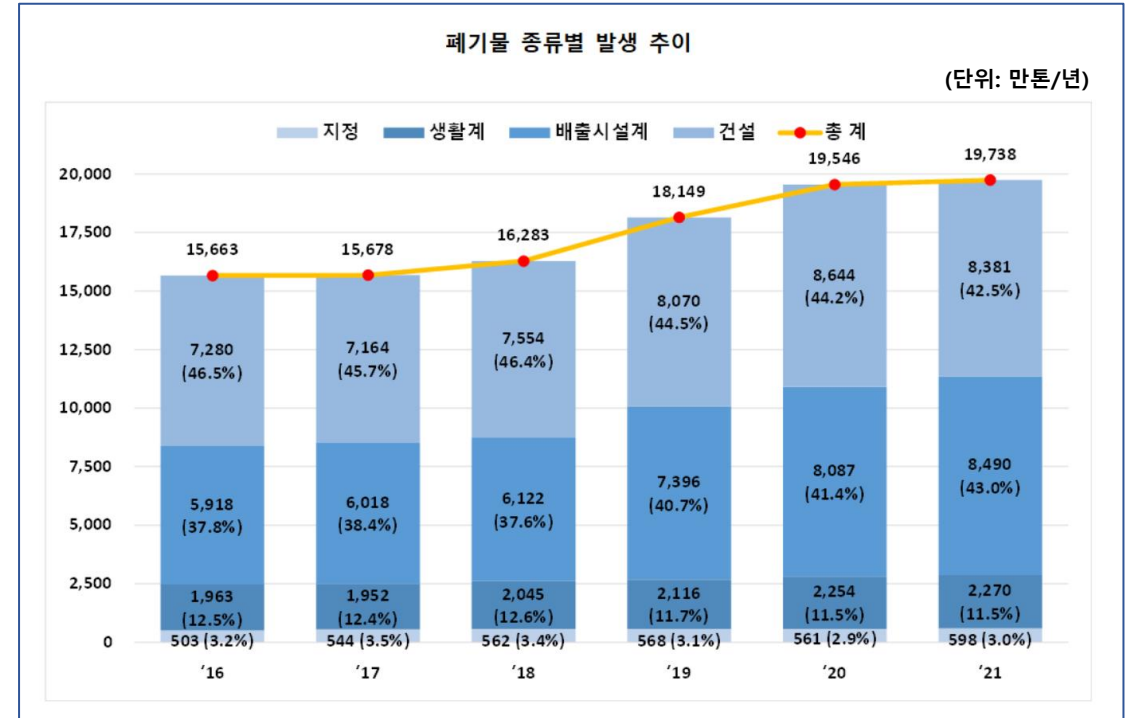
(출처 : Ellen McArthur Foundation, <The Butterfly Diagram: visualizing the circular economy>, Feb. 2019)

2 순환경제 전환 현황

-2 작동하지 않는 순환경제 전환 기초



(출처 : Statista, <Global municipal solid waste generation projection 2016-2050>, 2023.7.18)



(출처 : 한국환경공단,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22)

순환경제 전환 논의는 증가하고 있지만,
자원낭비라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여전히 견조한 증가세

2 순환경제 전환 현황

-3 소 결

순환경제구조로의 전환 : **선형경제구조의 탈피**로부터 시작

의, 식, 주 등 생활영역 전반의 변화 필요 : 연구와 콘텐츠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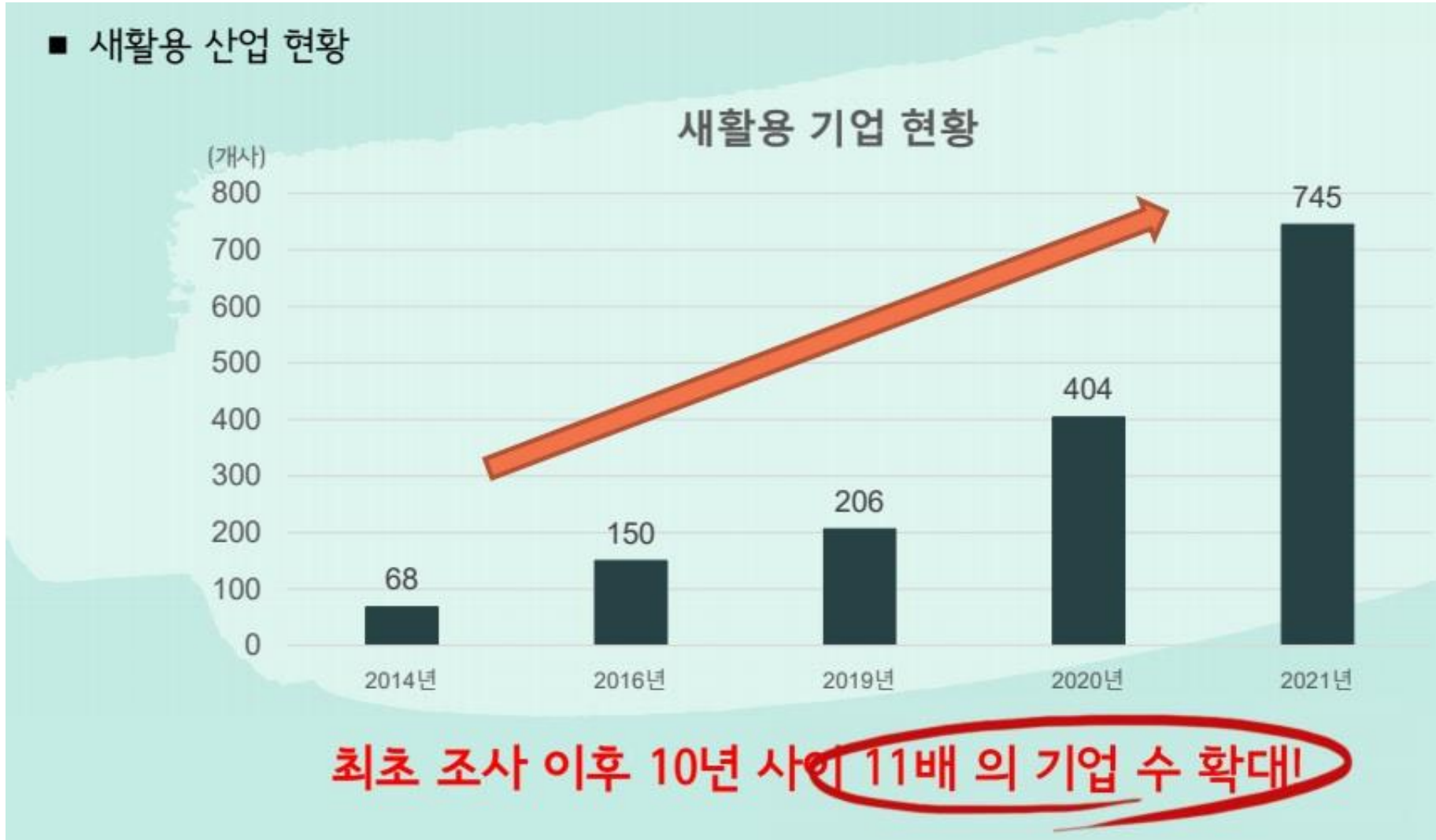
순환경제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의, 식, 주 콘텐츠 → **업사이클**

3

국내 업사이클 산업 현황

3 국내 업사이클 산업 현황

-1 업사이클(재활용) 기업 수 증가



(출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재활용 산업 소개>, 2022.9.)

3 국내 업사이클 산업 현황

-2 업사이클(새활용) 기업 현황(1/2)

■ 새활용 기업 현황(환경부 지원사업 수행기업)

새활용 기업은 주로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이 2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설립된 시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비중 최대 (n=76)

>>> 수요조사개요

- (목적) 새활용 기업에 대한 운영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안정적인 기반 마련
- (조사내용) 새활용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현황 및 새활용 활동 사항 등

조사대상 : 새활용 기업을 운영중인 대기업·중견/중소기업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실시

조사기간 : 2022.05.02~2022.05.13 (14일간)

조사항목 : 기업 현황, 새활용 소재 공급 현황, 새활용 제품 제조 현황, 인증 관련 현황 등

>>> 기업유형

(단위: 건)



- 응답기업 76개 중 중소기업이 75건(98.7%)으로 높은 비중 차지
- 기업의 종사자수는 5인 미만 기업이 52건(68.4%)으로 높은 비중 차지

>>> 기업업력

(단위: 건)



- 기업 업력은 5년 미만인 기업이 52건(68.4%)로 신생기업 다수 존재
-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억 원 이하가 41건으로 53.9% 차지

(출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새활용 산업 소개>, 2022.9.)

3 국내 업사이클 산업 현황

-2 업사이클(재활용) 기업 현황(2/2)

■ 재활용 기업 현황(환경부 지원사업 수행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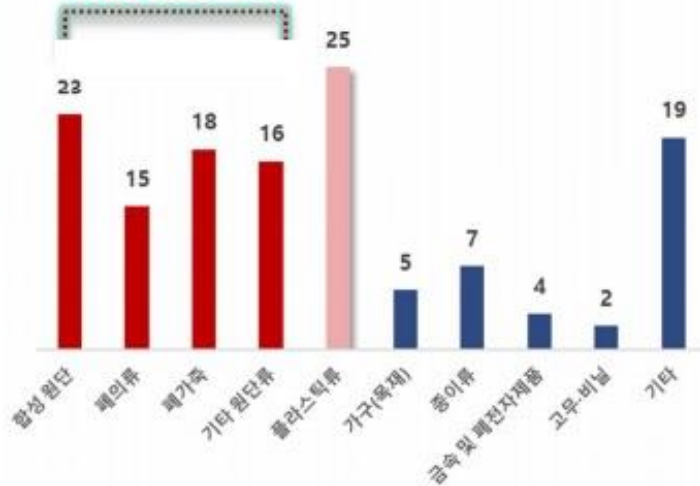
재활용 기업은 수급처 확인이 가능한 **플라스틱류, 합성원단** 등의 소재를 활용하며, 구매처에 요구하거나 직접 시험기관에 의뢰하며 유해물질 관리 실시

>>> 재활용 활동 활용 소재

- 재활용 활동 활용 소재는 원단 관련 소재(합성 원단, 폐의류, 폐가죽, 기타 원단류) 72건(53.7%), 플라스틱류 25건(18.6%)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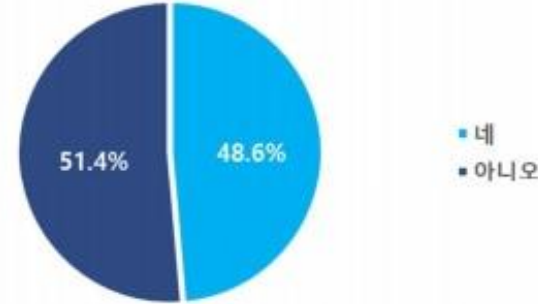
원단 관련 소재

(단위: 건, 복수응답)



>>> 유해물질관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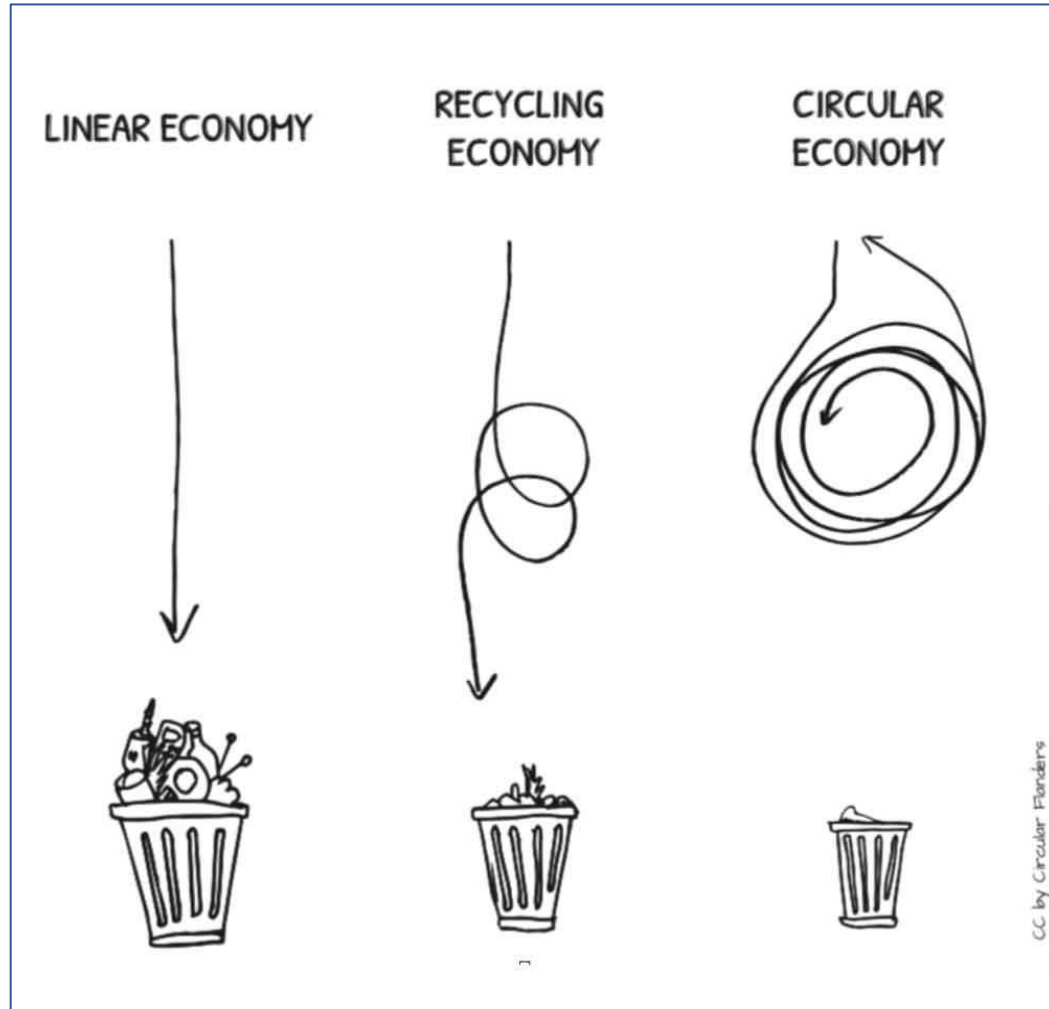
- 재활용 소재에 대한 유해물질(환경성) 관리를 하는 기업은 36건으로 47.4%를 차지하지만, 유해물질 관리를 하지 않는 기업도 40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대부분의 기업은 재활용 소재에 대한 유해물질(환경성) 관리를 구매처에 요구하여 시험 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보유하거나, 시험 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음

3 국내 업사이클 산업 현황

-3 업사이클(재활용) 산업의 위상



(출처 : CC by Circular Flanders via CommonObjective.co)

· 업사이클 제품 제조 방식

: 폐소재 수거 → 세척 → 소독 → 가공/제조 → 판매

(예) 폐자동차의 카시트 → 가방

투명 페트병 → 티셔츠, 에코백, 기능성 의류

· 이제 이들 제품의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될까?

: 업사이클 제품 대부분은 재활용도 어려움



현재 업사이클산업은 **재활용 경제**의 일환



업사이클, 폐기 소재의 고부가가치 창출보다

닫힌 순환고리 완성에 방점을 두어야

3 국내 업사이클 산업 현황

-4 업사이클(재활용) 산업의 요건(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약칭 : 환경기술산업법 >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출처 : 로앤비, lawnb.com)

3 국내 업사이클 산업 현황

-4 업사이클(재활용) 산업의 요건(2/2)

환경기술산업법 상 '업사이클(재활용) 산업'의 요건

-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 2)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
- 3)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 4)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업사이클(재활용)은 업사이클 기업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닐 것.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모든 경제활동이 업사이클의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



업사이클 = 순환경제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및 솔루션

3 국내 업사이클 산업 현황

-5 소 결

업사이클, 자원을 대하는 자세

업사이클 산업이 성장하려면

폐 소재를 활용한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순환경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해야

이 솔루션의 필수불가결한 부산물 또는 디바이스로서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델로 디자인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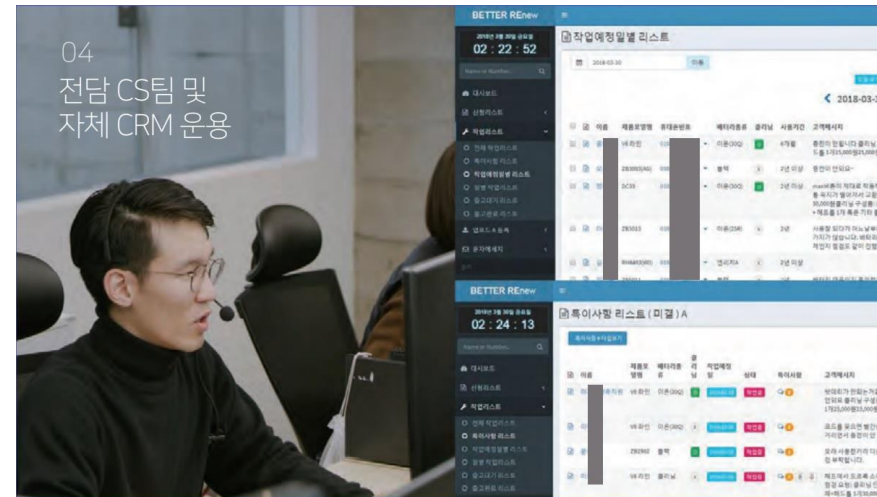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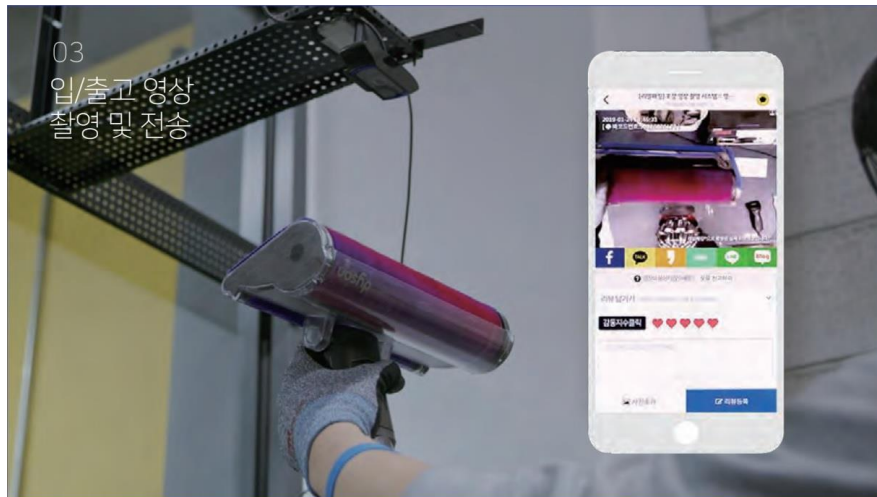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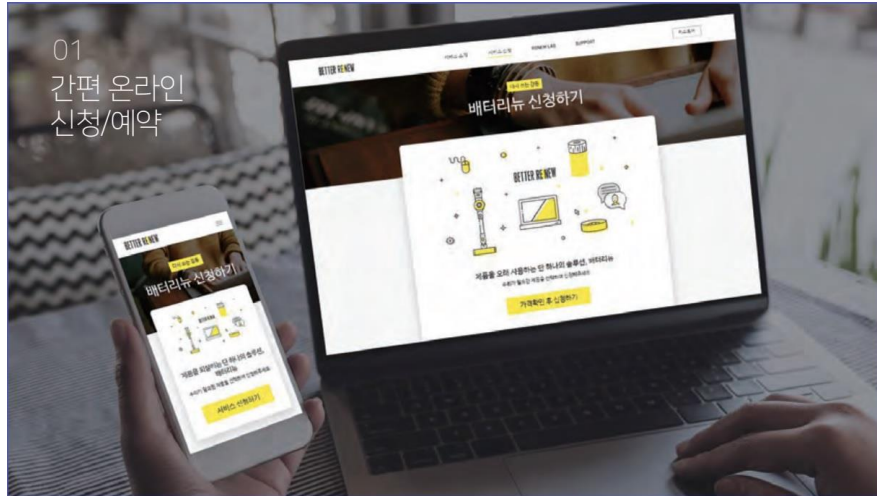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1 B to C 모델 - 소셜벤처 인라이튼(ENLIGHTEN) 1/6

배터리뉴(BETTER RENEW) 사업 모델 : 고가 청소기 수리/수선



(출처 :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서울환경연합/에코시티서울, 2023.6.23.)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1 B to C 모델 - 소셜벤처 인라이튼(ENLIGHTEN) 2/6



(출처 :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서울환경연합/에코시티서울, 2023.6.23.)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1 B to C 모델 - 소셜벤처 인라이트(ENLIGHTEN) 3/6

NEW WAVE OF ELECTRONICS NEW WAVE OF ELECTRONICS NEW WAVE OF EL

Newte
뉴트가 제안합니다

오래 쓰고
잘 버리는

지속가능한 가전라이프

NEW WAVE OF ELECTRONICS NEW WAVE OF ELECTRONICS NEW WAVE OF EL

Newte

Newte, NEW WAVE OF ELECTRONICS

뉴트는 편리한 가전제품이 지구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오래 쓰고 잘 버리는 가전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출처 :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서울환경연합/에코시티서울, 2023.6.23.)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1 B to C 모델 - 소셜벤처 인라이트(ENLIGHTEN) 4/6



(출처 :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서울환경연합/에코시티서울, 2023.6.23.)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1 B to C 모델 - 소셜벤처 인라이튼(ENLIGHTEN) 5/6

neute 서비스 과정 상품보기 브랜드 이벤트 Support Login 회원가입 **+5,000** Bag

프리미엄 A/S

뉴트 가전을 언제나 새것처럼!
리페어&케어 서비스

- 01 간편신청 & 상담**
상담톡 한번으로 간편한 A/S신청 및 상담
- 02 안심박스 수령 / 포장**
수령한 안심박스로 안전포장하여 비대면 방문수거 신청
- 03 전문 엔지니어의 프리미엄 A/S**
정밀점검을 기반으로 전문 엔지니어 수리 작업 진행
- 04 안전 포장된 제품 수령**
A/S 완료된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최종 수령

(출처 : newte 홈페이지 캡처 www.newte.kr)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1 B to C 모델 - 소셜벤처 인라이튼(ENLIGHTEN) 6/6

newte 서비스 과정 상품보기 브랜드 이벤트 Support Login 회원가입 | Bag +5,000

폐기/수거

뉴트는 100%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 01 모바일 간편신청**
QR 스캔 한 번으로 간편한 모바일 신청
- 02 안심박스 수령 / 포장**
수령한 안심박스로 안전포장하여 비대면 방문수거 신청
- 03 되살림 or 폐기**
되살릴 수 있는 제품은 되살리거나 적정폐기

(출처 : newte 홈페이지 캡처 www.newte.kr)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2 B to B 모델 - 주식회사 제클린(JeCLEAN) 1/6

제클린(Je-Clean) 최초 사업 모델 : 친환경 세탁

(출처 : 제클린)

호텔식 최고급 베딩을 위한 친환경 전문 세탁 서비스

제클린은 친환경 세제와 시스템을 이용한 정기 세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soss.jeclean.com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2 B to B 모델 - 주식회사 제클린(JeCLEAN) 2/6

특급호텔 서비스 수준 유지 위해 작은 흠만 있어도 고품질 순면 베딩 폐기

(출처 : 제클린)

Discarded Bedding (made of 100% co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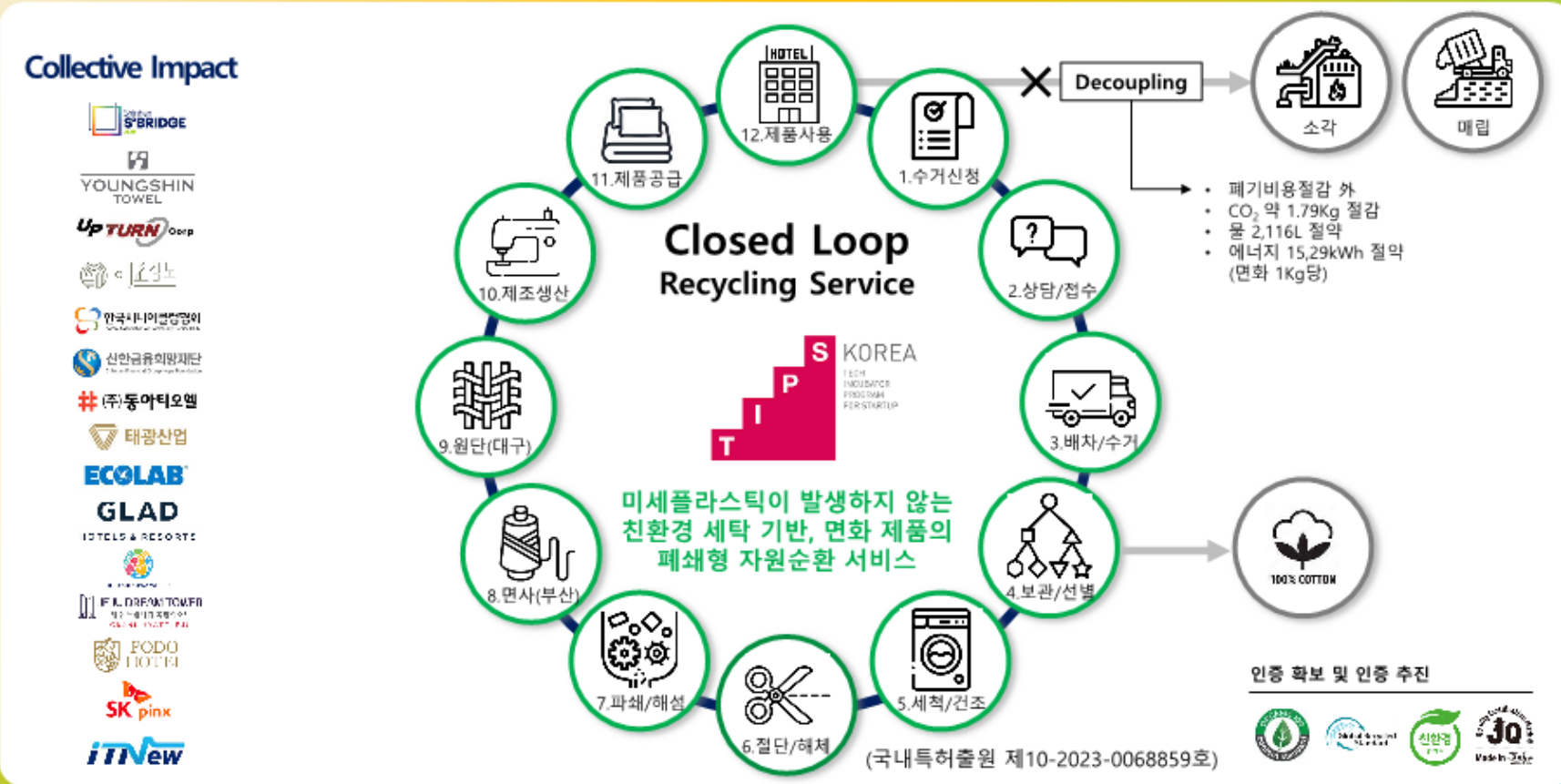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2 B to B 모델 - 주식회사 제클린(JeCLEAN) 3/6

달힌 순환고리 달성(1/2)

(출처 : 제클린)

친환경 세탁 기반 면화 제품의 자원순환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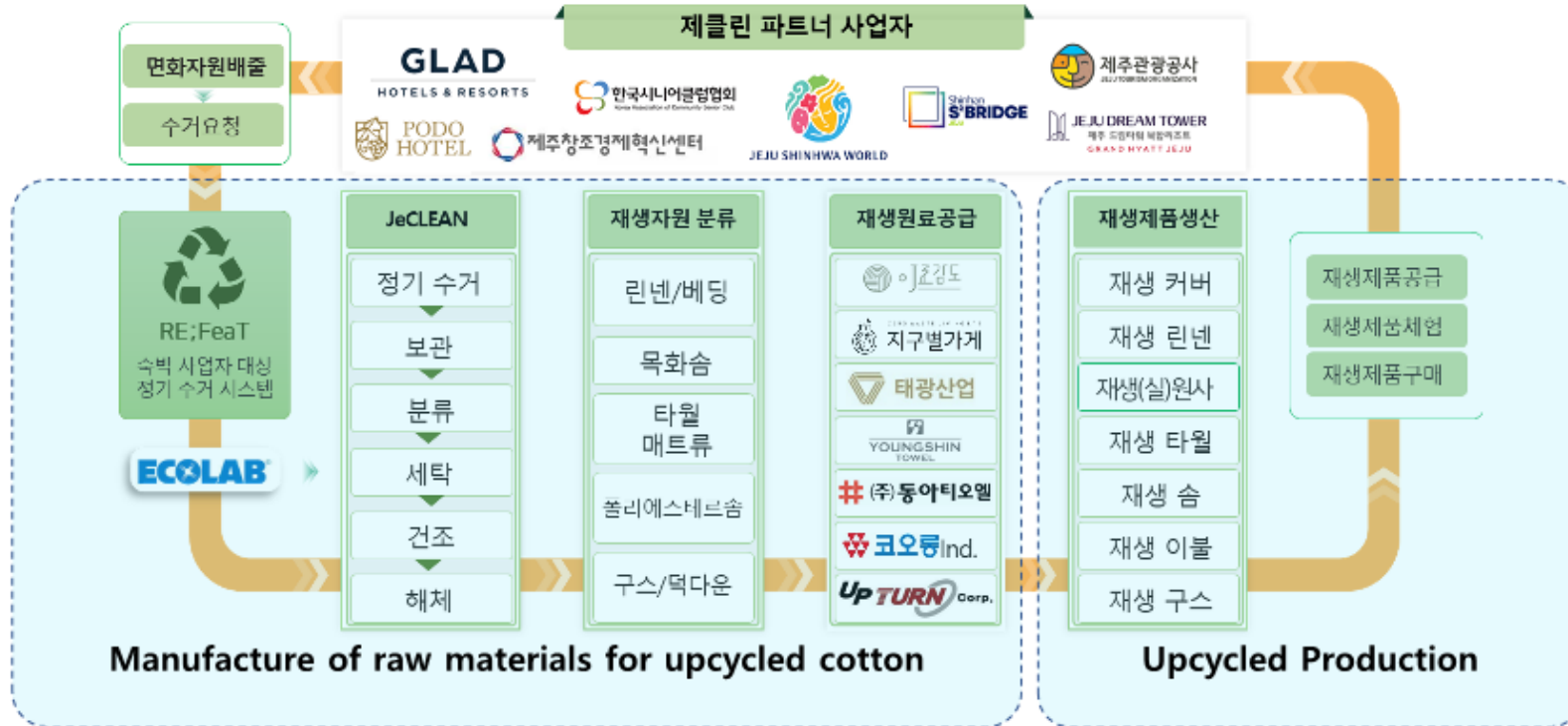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2 B to B 모델 - 주식회사 제클린(JeCLEAN) 4/6

달힌 순환고리 달성(2/2)

(출처 : 제클린)

최고급 호텔 베딩 제품의 Recycled Post-Consumer Cotton Process



순도 높은 100% 면화 재생 원료 선별 공급과 업사이클링 솜, 원사, 원단의 독점 계약 OEM 생산, GRS 인증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2 B to B 모델 - 주식회사 제클린(JeCLEAN) 5/6

제클린(Je-Clean) 생산 제품

(출처 : 제클린)

면화의 순환 자원을 통한 신재생 사업화

제클린 주도의 협업을 통한 제품 공동 개발



 태광산업



(주) 동아티오엘




YOUNGSHIN
TOWEL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2 B to B 모델 - 주식회사 제클린(JeCLEAN) 6/6

제클린(Je-Clean) 향후 계획

(출처 : 제클린)

베딩 세탁 케어 서비스 고도화



신규 공간 입주 및 장비 증설을 통한 생산 확대

- 재생 제품 전시, 프로세스 소개, 재생 물류 공간 확보
- 설비 도입, 작업 환경 최적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정화 시설 추가 도입을 통한 물 관리 및 우수 정화 시설 도입 추진



베딩 서플라이 도입을 통한 기존 Laundry 사업 효율 극대화

- RFID를 이용한 배송 및 분류, 공정 효율을 통한 물류 비용 절감
- 자체 재고 제품 공급을 통한 숙박 사업자 대상 Tied In 전략
- 기간 사용 후 재고 제품의 재생 원료화



대형 사업자 전략 제휴를 통한 구독 상품 활성화

- 가전 사업자 제휴 추진 (NDA)
- 매트리스 렌탈 사업자 제휴 추진 (코웨이, SK매직)
- Co-Living 하우스, 공유숙박, Share 하우스 제휴 추진 (망그로브, SK디앤디)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3 결 론(1/2)



FILE - Apple CEO Steve Jobs holds up an Apple iPhone at the MacWorld Conference, Jan. 9, 2007, in San Francisco. On Sunday, July 16, 2023, a first-generation iPhone sold at auction for \$190,373, almost 380 times its original price of \$499 when the groundbreaking device went for sale in 2007. (AP Photo/Paul Sakuma, File)

Apple이
우리에게 판 건은
과연 무엇이었나?

iPhone?

스마트 라이프스타일?

(출처 : <https://www.live5news.com/2023/07/18/first-gen-iphone-sells-auction-almost-380-times-its-original-price/>)

4 업사이클, 순환경제 솔루션

-3 결 론(2/2)

폐소재의 고부가가치 창출에만 집중하다 보면
원치 않게 **그린워싱**에 빠지게 되거나
기존 새제품과 **레드오션**에서 경쟁해야 함

순환경제 혁신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의 기업들이 팔아야 할 것은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순환경제시대에 적합한 라이프스타일이어야 : **업사이클 2.0**

업사이클 제품과 서비스는 도구에 불과, 그것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순환경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면,

스스로 형성한 **블루오션**에서 **독점적 시장지위**를 가질 수 있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